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도참고자료	

배포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7. 7. 1.(토)	담당부서	다자통상협력과
담당과장	서가람 과장 (044-203-5640)	담 당 자	구교영 사무관(044-203-5645)

WTO·OECD 등 "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7차 보고서" 발표

- G20 회원국의 무역구제조치 발동 감소세 -

□ 세계무역기구(WTO)에 따르면 올해 **상반기 주요20개국**(G20) 회원국의 **무역제한조치 월평균 신규도입 건수**는 반덤핑, 상계관세 등 **무역구제조치를 중심으로 다소 감소**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□ 세계무역기구,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,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(UNCTAD) 사무국은 6. 30.「**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7차 보고서**」**(조사기간: '16.10월 중순~'17.5월 중순, 7개월간)**를 발표했다.

○ 이 보고서는 **'무역·투자 제한조치 동결(standstill)과 원상회복(roll-back)'**에 대한 **주요20개국** 정상회의 합의('09년 4월)에 따라, 주요 20개국 회원국의 이행 상황 점검을 목적으로 '09년 9월부터 매년 상·하반기 각 1회 발간한다.

※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보고서
- ○ 조사 주체 : 세계무역기구(WTO)(무역),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·무역개발회의(UNCTAD)(투자) 사무국 공동 작성
- ○ 조사 대상국 : G20 회원국
- ○ 조사·발간 회수 : 연 2회(상·하반기 각 1회)

《 무역 관련 조치 》

□ **(무역구제)** 주요20개국 국가들의 **가장 대표적인 무역 조치*인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의 월평균 개시 건수가** 직전 조사기간 대비 **감소**

* 무역구제조치가 조사 대상 기간에 집계된 총 무역조치의 71%를 점유

○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**반덤핑 조사의 경우** 월평균 17.7건이 신규 개시되어 '16년 하반기 대비 **4.7건 감소**(22.4건 → 17.7건)

- **기존에 발동되어 오던 반덤핑 조사 또는 관세 부과의 폐기 건수**는 월평균 7.7건으로 '16년 하반기 대비 1.3건 감소(9건 → 7.7건)

○ 신규 개시된 무역구제조치는 **총 251억불 규모의 무역**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**이는 전 세계 무역규모의 약 0.15%**에 해당

< 무역구제조치 도입 >

(단위 : 건수, 괄호 안은 월평균)

조사기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	2016.5월중 -2016.10월중	2016.10월중 -2017.5월중
무역구제조치 개시							
반덤핑	166	238	208	176	228	**112 (22.4)**	**124 (17.7)**
상계관세	22	33	37	31	30	9	20
세이프가드	13	7	13	4	6	4	2
합계	201	278	258	211	264	125	146
월평균	16.8	23.2	21.5	17.6	22.0	25.0	20.9
무역구제조치 폐기							
반덤핑	128	135	144	122	113	**45 (9)**	**54 (7.7)**
상계관세	21	15	21	19	9	6	7
세이프가드	10	3	6	10	7	2	1
합계	159	153	171	151	129	53	62
월평균	13.3	12.8	14.3	12.6	10.8	10.6	8.9

□ **(무역제한조치)** G20 회원국들의 **여타 무역제한조치***는 '16년에는 감소하였으나, **이번 조사기간에는 다시 증가**(월평균 4.8건 → 6.0건)했다.

○ 수입제한조치(3건 → 4.1건)와 기타조치(0.8건 → 1건)가 증가

* ① 수입제한(관세인상, 통관절차, 수입할당 등), ② 수출제한(수출세, 수량제한 등), ③ 기타(국내산 부품 사용강제 등)으로 구성

□ **(무역원활화조치)** 이번 조사기간 중 신규 도입한 **무역원활화조치***의 경우 **예년과 유사한 수준**(6.0건 → 6.0건)을 유지했다.

○ 수입원활화조치(5.2건 → 4.8건)는 다소 감소하였으나, 수출원활화조치(0.8건 → 1.1건)으로 소폭 증가했다.

* ① 수입원활화(관세인하, 통관절차 완화, 수입할당 확대 등), ② 수출제한(수출세 인하, 수량제한 완화 등), ③ 기타(국내산 부품 사용강제 완화 등)으로 구성

< 무역제한조치 및 무역원활화 조치 도입 >

(단위 : 건수, 괄호 안은 월평균)

조사기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	2016.5월중 -2016.10월중	2016.10월중 -2017.5월중
무역제한조치							
수입제한	61	63	45	62	42	**15 (3)**	**29 (4.1)**
수출제한	10	19	16	22	7	5	6
기타	9	4	9	9	10	**4 (0.8)**	**7 (1)**
합계	80	86	70	93	59	24	42
월평균	6.7	7.2	5.8	7.8	4.9	4.8	6.0
무역원활화조치							
수입원활	96	71	77	74	61	**26 (5.2)**	**34 (4.8)**
수출원활	9	10	5	25	12	**4 (0.8)**	**8 (1.1)**
기타	4	1	1	2	2	0	0
합계	109	82	83	101	75	30	42
월평균	9.1	6.8	6.9	8.4	6.3	6.0	6.0

《 투자 관련 조치 》

□ **전 세계 해외투자(FDI)는 2016년부터 성장세가 감소**한 결과 이번 조사 기간에는 1.75조 달러였다.

○ 이 가운데 주요20개국 회원국으로의 유입액은 약 1.2조 달러 수준에 그쳤다.

□ 조사 기간에 일부 국가는 **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**하였는데,

○ **중국**은 중앙 및 서부 지역에 대한 해외투자 우선유치 대상 산업의 목록을 확대됐다.

○ **브라질**은 해외투자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, 종래 외국인 자본참여가 제한된 원유산업에 대한 투자 허용과 입찰참여 요건을 완화했다.

□ 한편, 동 기간중 주요 20개국 회원국들은 **6건의 양자투자협정과 3건의 기타 국제투자협정을 신규 체결**하였으나, 적어도 10건 이상의 양자투자협정을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다.

* '17.5.15 기준 G20 국가의 양자투자협정은 총 2,958건, 기타 국제투자협정은 369건

□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**세계무역기구**는 동 보고서의 내용 중 **무역제한적 조치의 증가**는 무역 흐름의 축소를 가져오는 것이 사실이나, 이를 **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된 것으로 해석하는 데 대하여는 주의**할 것을 강조함

○ 조사 결과 **대부분의 관세 인상은 세계무역기구(WTO) 협정에 합치**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며, 모든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조치가 **보호주의적으로 적용되었다고 일의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.**

□ 산업부 관계자는 주요20개국(G20) 국가들 사이에서 **무역을 제한하는 조치가** 전체적으로는 다소 감소하였으나, **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**하고 있어, **무역·투자 제한조치의 동결과 원상회복**을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이 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.

○ 또한 올해 **2월 세계무역기구(WTO) 무역원활화협정(TFA)이 발효**되어 앞으로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투명화 등 무역 원활화 조치가 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, **동 협정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 노력**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.

붙임 : "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7차 보고서" 조치별 상세내용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 서가람 과장(☎ 044-203-5640)과 구교영 사무관(☎ 044-203-5645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
"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7차 보고서" 조치별 상세내용

※ (註1) WTO는 본문의 조사와는 별도로 달리 조사기간을 설정하여 개별 조치별 분석을 실시

※ (註2) TBT·SPS 통보의무는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투명성을 증진하지만,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는 조치뿐 아니라 정당한 규제 조치도 대상에 포함됨

□ 반덤핑 조치

○ '16.7~12월간 G20 회원국들은 철강 등*을 대상으로 120건**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이전 기간('16.1~6월) 108건 대비 12건 증가

* 철강·금속(44%), 화학(19%), 플라스틱(15%), 유리·세라믹(6%) 등 순

** 인도(21건), 아르헨티나(19건), 미국·터키(13건), 캐나다(11건), EU(9건) 순 (한국 4건)

○ '16년 철강·금속에서 가장 많은 조사를 개시한 국가는 미국(21건)과 캐나다(13건)였던 반면, 중국(23건), 한국(8건)은 조사 피소 횟수가 가장 많았음

□ 상계관세

○ '16.7~12월간 G20 회원국들은 철강 등*을 대상으로 11건*의 신규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여 이전 기간 19건 대비 8건 감소

* 철강·금속(73%), 목재(18%), 기타(9%) 순

** 호주(5건), 미국(4건), 브라질·캐나다(각 1건) 순

□ 무역 관련 기술장벽(TBT) 조치

○ WTO TBT 협정상 통보의무에 따라 '16.10.1~'17.4.30간 G20 회원국이 TBT 위원회에 통보한 조치*는 388건이며, 국가별로는 미국이 최다**

* 목적별로는 인간의 건강·생명보호(44%), 환경보호(21%)

** 미국(86건), EU(75건), 한국(44건), 맥시코(30건), 캐나다(23건) 순

□ 위생 및 식물위생(SPS) 조치

○ WTO SPS 협정상 통보의무에 따라 '16.10.1~'17.4.30간 G20 회원국이 SPS 위원회에 통보한 조치*는 302건이며, 캐나다가 21%로 최다를 차지

* 통보 내용은 식품 첨가물, 잔류허용기준(MRL), 살충제 등 식품안전 관련이 대부분(77%)